조계종 대종사 자격요건 강화 추진

종헌특위, 승랍 · 연령 외에 별도 자격요건 추가키로

조계종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 자격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는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의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법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현재 대종사의 자격요건은 승랍 40년과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법계 수지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별다른 자격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현행 기준시 대종사 자격요건을 갖춘 스님이 65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서는 승랍 기준을 강화할 시 출가연령이 평균 40대인 현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대종사도 법계의 하나이기에 문턱을 높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대종사는 삼장법사와 같은 수행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승랍과 연령만으로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종헌특위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헌특위는 대종사 현행 자격요건에 △중덕법계 품수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서 20안거 이상 성만 △원로의원 · 총림방장 · 총무원장 · 중앙종회의장 · 호계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 등을 역임 △교구본사주지 4년, 각급 위원회 위원장 4년, 중앙종회의원 8년, 교육법에서 정한 교직자로 재직 20년 이상을 추가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법개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발의키로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국화꽃 도량 속 童心세계 국화꽃이 만발한 서울 조계사에서 어린이들의 동심세계가 하얀 도화지 위에 펼쳐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0월 23일 조계사 일원에서 제12회 아동미술큰잔치를 개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원아 500여 명은 국화꽃이 만발한 조계사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무팽위와 단주, 연꽃등을 만들며 동심을 키웠다. 사진은 재단 대표이사인 원행 스님이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아이들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모습.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사 · 봉은사 · 보문사 주지 유임

연등회 사무국장 · 호법부 상임감찰 인사 단행

조계종 직영사찰인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강화 보문사 주지인 지현 스님, 원명 스님, 선조 스님이 모두 유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직영사찰 관리인으로 지현 스님과 원명 스님, 선조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현직 주지의 재임 결정은 스님들이 앞서 수년간 안정적으로 도량을 관리해 온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사부대중이 힘을 합쳐 종단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영사찰 스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일사분란하게 큰일을 해나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직영사찰 주지스님들은 "안정적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에 혜원 스님을, 호법부 상임감찰에 선적 스님을 임명하는 등 일부 교역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호섭 기자**

"마음 빛 밝혀야 삶의 주인공"

진각종, 제13대 총인 경정 대종사 추대법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0월 24일 진각문화전승원서
"본분사 다하면 正道 걷는다"
14일 법통승수식서 법맥 이어
사부대중 1000명 동참해 축하



진각종 제13대 총인으로 추대된 경정 대종사.

진각종 제13대 총인 경정 대종사 추대법회가 10월 24일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경정 총인은 법어를 통해 "진리법은 본체요, 현실의 일은 그림자라 일렀다. 불교가 본분사를 다하면 사회도 정치도 정도를 걷는다. 진리법은 세속에 머물면서 세속을 초월한다"며 "상대자의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는 가르침이 있다. 타인을 탓하기 전에 근본이 되는 나를 먼저 보아야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평화롭게 된다"고 설했다. 이어 경정 총인은 "우리의 본성은 광명이다. 마음의 빛을 밝히면 제 자리를 찾아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 덧붙였다.

봉행위원장 회성 정사(통리원장)도 봉행사를 통해 "오늘은 이 땅 밀교의 법맥을 전수상승하는 법통의 상징이며 존엄한 선지식의 추대를 만 중생에게 알리는 희망의 자리"라며 "우리들은 제13대 총인 추대법회를 봉행하면서 이 인연으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께서 증득하시고 가르치신 길을 따라 심인지리의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총금강회장 익정 각자는 추대사를 통해 "경정 대종사님을 제13대 총인으로 추대하면서 전국의 스승님과 진언행자가 다시 하나 되기를 발원한다"며 "신교도들이 환희하게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어야 한다. 종단발전협의회를 통해 진각인에 의한, 진각인을 위한, 진각인의 3대 가치인 청정, 혁신, 화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봉행위원 덕정 정사(교육원장)는 강도발원문에서 "부처님의 가지원력과 종조님의 무진서원으로 진각의 법통을 승수하신 총인예하의 법체가 더욱 강건하고 법력 승수하시어 종단의 법통이 성스럽고 엄정하게 지켜지길 서원한다"며 "종단이 그동안 쌓아온 정진력을 경험으로 삼아 이룩한 대작불사를 바탕으로 진각종지의 실현을 위한 용맹정진을 새롭게 하여 밀교문화의 찬연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도록 힘쓰겠다"고 발원했다.

경정 총인은 앞서 14일 법통승수식을 통해 △총인 낙자 가지 △심인교계(心印敎誡) 승수 △법인장(法印章) 인계 등 법통승수작법을 거쳐 한국밀교의 법맥을 이었다. 경정 총인은 회당대종사 전에 "이제 총인에 취임함에 즈음하여 불의를 준봉하고 법통을 승수 실천하며 종단의 발전과 불법의 호지를 절대목표로 함으로써 종단 내지 전 세계 불자와 전 인류를 위하여 현세정화 복지증진을 성취할 총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지민 스님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자주권 침해 세계유산관리법 폐기하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종단차원 공식입장 밝혀
내년 예산안도 일부 공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세계유산관리법 폐기 촉구를 논의하고 있다.

"세계유산특별법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불교와 종단의 자주적 관리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단호히 배격하며, 이 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가 '세계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 입법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추진되는 세계유산관리법이 전통사찰 소유의 세계유산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관리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가의 재정지원을 법으로 명시한 법안이다. 하지만 '한국의 산지승원'이 2018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교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이 사안을 뒤늦게 인지, 중앙종회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세계유산관리법이 불교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불교계의 지적을 확인했다"면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불교계의 의견을 100%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만 가능해 조계종이 법안 폐기를 촉구한 것이다.

비공개 회의서는 세계유산관리법 폐기 촉구 외에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와 백만원력 결집불사 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5%가량 증가한 약 295억 원, 특별회계는 5.6%가량 증가한 약 753억 원으로 책정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교구 및 사찰 분담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중앙종무기관 특성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책임과 역할을 올바르게 하고자 사업내용을 토대로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에는 종단의 목적불사가 실질적인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예산안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원행 스님은 최근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각 교구본사별로 교구대법회를 봉행한 데 이 같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지난 4월 선포식을 시작으로 추진위원 88명을 위촉하고, 교구 및 직할사찰에 발우저금통 6만5000여개를 배포했다. 지난 9월에는 조계사 외 11개 사찰의 저금통 1322개를 회수했으며, 이번 달부터 교구별 대법회가 진행 중이다.

교구대법회는 10월 5일 제19교구본사 화엄사부터 현재까지 동화사, 월정사, 수덕사, 은해사, 범어사가 동참했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통도사와 금산사의 교구대법회도 예정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본사는 교구대법회를 대신해 거액의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을 기탁하는 등 전국적인 성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를 향한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걷어내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정진해온 시간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여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심사위원회는 24일 세계유산관리법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고, 제2소위로 회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